

# 시진핑 시기 중국외교담론 분석

서상민(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 I. 문제제기

언어는 특정한 구조를 갖춘 힘의 발현 행위이다<sup>1)</sup>. 비판적 담론분석 이론을 연구한 언어학자 노만 페어클러프의 이러한 주장에 근거해 볼 때,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식(knowledge), 행위(behavior), 권력(power)의 관계를 규명하고 분석하기 위한 대상은 역시 ‘담론’(discourse)이라는 개념이다.<sup>2)</sup> ‘언어’와 ‘언어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를 분석하는 담론분석은 행위자들이 맺고 있는 지식-행위-권력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 것이며, 담론의 생산자가 언어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도’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그 요소들을 분별해 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언어를 통해서 확산 되는 ‘지식’ 역시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보편적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특정한 집단이나 세력의 가치관을 담지하고 있으며, ‘힘’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담론분석이 필연코 ‘비판성’을 담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담론생산자와 담론소비자간 권력관계 속에서 권력의 실체적 의도와 본질을 파악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국의 시진핑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 많은 거대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일찍이 “신형 대국관계론”,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인류공동운명체” 등과 같은 담론을 생산했고, 앞으로 어떤 담론을 생산해낼지 모른다. 이러한 시진핑 정권의 담론 속에는 묵하 진행되고 있는 권력관계를 담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담론의 직접적인 소비자인 중국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지배세력인 중국공산당이 이러한 언어를 통한 정치적 행위하려 하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지를 직감적으로 문화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이 아닌 ‘외부자’는 중국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담론들이 그들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담론의 생산자들의 의도하는 바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어가 아닌 타 언어로 번역되어 발화하고 있는 ‘텍스트’ 속에서 중국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곧바로 체득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외부자’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어떤 의도와 맥락 속에서 각각의 개별 담론들을 창출해내고 있는지에 대해 ‘맥락전체’, 또는 ‘전체적 맥락’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기도 한 시진핑 정권의 ‘인류운명공동체론’(人类命运共同体, a Community of Common Destiny; a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Mankind)은 중국한 일종의 인류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수퍼 강대국인 미국의 대안세력으로 자신만의 향후 국제질서의 청사진을 내놓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담론 속에는 현존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역학관계 그리고 중국이 지향하는 향후 국제사회의 모형들이 잘 드러나 있다. 즉 현존 국제질서에 대한 비판, 권력관계, 중국의 의도와 목표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담론이라 하겠다. 국가최고 지도자의 연설문이나 국가와 국가가 맺는 조약이나 협정 등 문건 속 외교담론은 특정시기 해당국가 인식하고 있는 국제정세 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외교전략과 정책을 담지하고 있다.

1) Fairclough, Norman. *Language and Power*. (Pearson Education, 2001). p.2.

2) 서덕희. 「담론분석방법과 연구사례」 『대한질적연구학회 학술발표논문집』10(2011), pp.28-43.

그렇기 때문에 특정시기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이익의 내용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현존하는 세력관계 하에서의 자국의 세력을 확대하기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sup>3)</sup> ‘인류운명공동체’는 주변국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sup>4)</sup> 점차 글로벌 차원의 담론으로 확대된 대표적인 중국의 외교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5)</sup>

본 연구는 시진핑 정권의 ‘인류운명공동체론’ 속의 중국의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과 중국외교의 목표를 시진핑의 관련 연설문에 대한 텍스트 분석방법을 통해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텍스트 분석방법을 통한 담론분석으로 중국의 담론 연구한 이유는 ‘언어’가 특정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서이다. 담론의 의미와 의도는 그 말의 전체적 맥락 하에서 그리고 그 말이 사용되는 체계 속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실을 언어 속에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구성하고자 하는 ‘구성된 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이러한 구성된 현실은 물론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으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담론 속에서의 현실은 가공된 현실이며, 의도되어 구성된 현실이라고 본다. 따라서 ‘인류운명공동체론’ 담론분석은 중국이 구성하고자 하는 현실이 무엇을 담지하고 있고, 그런 현실 속에서 중국이 ‘꿈꾸는’ 미래를 간취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시진핑 시기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국제정치학 함의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국제정치무대의 중앙으로 복귀하려는 중국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듯, 중국은 금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강대국 중국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강대국 중국의 ‘사회주의적 성격’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국제정치무대의 중앙으로 복귀하려는 중국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강대국 중국에 대한 기존의 중국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경향과 한계를 지닌다. 먼저,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적 틀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를 만들어 온 중국은 점차 사회주의적 성격이 퇴색되고 자본주의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각론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물론, 공산권 사회주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코르나이 역시 ‘중국은 사회주의가 아니다.’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이러한 경향 하에서 일부는 중국의 국가성격을 ‘

3) 伟男, 「试论中国国际气候话语权的建构」,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学报』, 1期, (北京: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 2011).

4) Godbole, Avinash. “China’s Asia strategy under president Xi Jinping.” *Strategic Analysis* 39.3 (2015), pp.298-302.; Callahan, William A. “China’s ‘Asia Dream’ The Belt Road Initiative and the new regional order.”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Politics* 1.3 (2016), pp.226-243.

5) Lingliang, Zeng. “Conceptual analysi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 road towards a regional community of common destiny.”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5.3 (2016), pp.517-541.; Chang-Liao, Nien-chung. “China’s new foreign policy under Xi Jinping.” *Asian Security* 12.2 (2016), pp.82-91.; Swaine, Michael D.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hina Leadership Monitor* 47.2 (2015), p.3-8.

국가자본주의'로 규정하기도 한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함께 중국의 강대국으로서의 모습과 세계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사회주의적 요소가 간과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상황으로, 이 역시 기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중국의 강대국화는 경제, 군사력, 전통문화 등의 요소들을 통해 해석·전망되고 있으나, 과연 중국에 사회주의적 경향이 약화 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더불어 중국의 국가형성과 강대국화 과정에서 중국의 사회주의성이 갖는 실제 역할과 작용에 대한 분석 필요하다. 중국의 강대국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거나 상대적으로 경시되었던 중국의 '사회주의적 성격'에 주목하고, 중국외교에서의 사회주의적 담론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미래 중국의 "사회주의" 강대국의 성격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기존의 연구와 분석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현 시진핑 정권이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표방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서의 외교담론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주장하고 나선 "신시대"와 "사회주의" 그리고 그 "중국적 특색"을 해체하여 분석함으로써 사회주의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정체성이 실제로 '사회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할 것인지를 규명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의 '사회주의적 성격'은 이 과정에서 대내와 대외의 두 측면에서 분석될 것이다. 먼저, 국내적 차원에서 중국은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에 대한 인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 강화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약화된 집권 이데올로기와 정당성의 보완을 위해 중화민족과 중화문명 등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그리고 전통문화를 동원하는 동시에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도이념으로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실체와 동력에 대한 의구심이 상존해 왔고, 대내외적으로 과도기에 처해있는 한시적 개념으로서, 혹은 경제적 차원의 국가자본주의와 정치적 차원의 일당독재 혹은 권위주의가 결합된 불안정한 이데올로기로써 치부되어 온 측면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인 바, 본 연구는 대내적 차원에서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관계에 내재한 사회주의의 성격에 대한 분석,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와 그 배경 및 내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정치제도의 개혁과 헌법의 수정 과정에서 도출될 사회주의적 성격의 상실, 유지 혹은 강화의 측면에 대한 분석 역시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내적 차원에서 신중국 성립이후 「중국헌법」에서의 사회주의적 성격의 변천과정을 탐색한다. 헌법개정은 특정시대 중국공산당 지도부, 그리고 중국인민들의 이른바 '시대정신'이 투영되어 있는 바, 헌법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중국의 '사회주의적 성격'(社會主義性)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특히 현재 시진핑 정권의 "신시대 중국특색적 사회주의"에서의 사회주의가 갖는 외연과 내포를 규명한다. 이는 사회주의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정체성'과 '국가이념' 그리고 대외정책을 비롯한 국정운영의 전반적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중국공산당 지배의 중국에서 국가와 사회관계 측면에서의 '사회주의성'을 '중국의 당-인민 관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사회주의 강대국 중국의 정치안정성의 문제를 당과 인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중국의 당-인민 관계의 본질적 내용인 "공산당 전위대론"의 현재적 유효성과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국의 정치안정성을 분석 및 전망할 것이다. 중국이 강대국이 되어가는 과정과 강대국으로서의 종합국력과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필수적 조건은 국내적 정치안정이다(장운미, 2013). 그리고 국내 정치안정의 가장 핵심적 요소는 안정적인 당-인민 관계이다. 당-인민 관

게는 중국의 실질적 권력 행사자가 ‘공산당’이며 ‘인민’의 개념이 중국의 건국 시기부터 주권자의 지위를 갖는 주체로 상정되어 왔고 “인민”의 개념은 건국 초기의 개념에서 변화된 내용을 가지지만 “사회주의적” 국가-사회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시진핑 집권 이후 사회주의적 성격의 강화와 함께 ‘인민’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张端, 2017; 刘建涛, 闫博荣, 2018). 실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시진핑 주석의 폐막 연설에서 ‘인민’을 유달리 강조했으며, ‘인민’이라는 단어가 최근에는 인민을 대체하며 더 공식적인 용어로 사용되던 ‘국민’의 자리를 다시 ‘인민’이 차지해가고 있다는 분석도 등장했다.

중국 정치안정 및 당-인민 관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시진핑 정부의 일련의 행보와 관련이 있다. 집권 이후 강대국화를 추구하며 당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고 있는 시진핑 정부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 회의에서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수정을 감행하였다. 이는 그간 평화적이고 예측가능한 권력승계를 제도화하며 중국 정치가 발전해가고 있다는 평가를 일시에 불식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개인의 독재와 장기집권이 향후 중국 정치안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핵심적인 연구 주제로 부상하였다. 즉 인민대중들이 당 중앙의 권위주의적 통치강화와 시진핑 총서기 개인의 권력 강화 및 장기 집권을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할 것인가가 중국 정치안정의 최대 변수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한편 중국의 대외관계에서의 담론분석을 위해서는 국제정치론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의 변용 과정을 재검토가 필요하다. 마르크주의 국제관계론의 현재적 의미와 도구적 기능이 중국현실에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이론 및 실천적 골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레닌주의 국제정치학이나, 이후의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 그리고 분석시각을 ‘하부구조’에서 ‘상부구조’로 이동시켜 이론적 분석력을 심화, 확대시킨 그람시(Gramsci)의 헤게모니이론, 여기서 더 나아가 이론 자체의 헤게모니를 지적하며 이론의 권력적, 도구적 성격을 부각시킨 콕스(Robert Cox)의 비판이론 등에서 제기된 외교전술이 중국의 실제에서의 외교정책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검증하는데 적용될 것이다. 즉, 이상의 과정을 통해 설정된 이론적 분석들을 통해 본 연구는 중국의 외교에서 발현되는 대외관계차원에서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본 연구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통해 ‘중국몽’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국의 현재 및 향후 강대국화 전략을 이론과 실제의 교차적 검증을 통해 보다 입체적으로 밝히고 ‘사회주의’ 강대국 중국의 외교가 국제질서와 한국의 대외정책에 갖게 될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인류운명공동체론”의 담론생산과 확산

#### 1. “인류운명공동체론”의 등장 배경과 의미

“운명공동체”(命运共同体; Community of common destiny) 담론은 일체성이 강조되는 용어이다. 서양의 국제관계학계에서는 공동체라는 용어는 자주 등장하지만<sup>6)</sup> ‘운명’과 ‘공동체’

6) 대표적으로 피터 하스(Peter Haas)의 “인식공동체”(a epistemic community)를 들 수 있다. Haas, Peter M.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1992), pp.1-35. 하스의 “인식공동체”는 국제적 문제에 대한 국가가 정책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특정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라는 의미로 이 용어를 사

를 묶어 사용하는 경우가 매우 적다. 운명과 공동체를 결합시키는 연구사례는 ‘정체성’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서양이나 동양의 사용용례를 보면, 서양에서는 19세기 프랑스 철학자인 에르네스트 르낭(Joseph Ernest Rena)가 국가의 기원에 대한 연구인 “국가란 무엇인가?”(What is a nation?)에서 국가라는 것을 ‘공동의 운명’을 나눈 공동체 인식에 기초한다 한 바 있다.<sup>7)</sup> 반면 중국에서의 “명운”(命运)이라는 용어는 “宿命和运气”를 결합한 것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진 변하지 않는 운과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운’이 합쳐져 “하늘로부터 부여한 명이 시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sup>8)</sup> 공동체와 운명을 결합하고 이러한 인식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체감을 ‘구성’하는 이른바 ‘상상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시진핑은 이를 국제적인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공식문건 중 “인류운명공동체”라는 용어가 처음 출현한 것은 제18차 당대회 공작보고에서 있다. 이 당대회 보고서에서 “‘인류운명공동체’ 의식을 제창함으로써 자국이익을 추구할 때 타국의 타당한 우려에 동시에 고려하고,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국가 간의 공동발전을 촉진한다”(要倡导人类命运共同体意识, 在追求本国利益时兼顾他国合理关切, 在谋求本国发展中促进各国共同发展)라고 내용이 있다.<sup>9)</sup> 그러나 여기에서 ‘인류공동운명체’라는 용어는 대체로 서술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지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인류공동운명체’ 담론까지 가지 못한 초보적인 형태의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용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미중 관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있는 동아시아 정세이다. 즉 중국공산당의 ‘운명공동체론’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전략’의 대응이라는 피동적이며 방어적인 입장을 보여 준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공세를 방어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지역공동체 인식의 확산하려는 의도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2년의 이러한 주변국외교에 대한 담론은 2014년에 시진핑 주석이 외교 관련 중앙공작회의에서 “중국외교 목표는 중국의 주변지역을 운명공동체로 바꾸는 것”이라고 명확히 제시하면서 구체화되었다.<sup>10)</sup> 이로써 방어적이며 수세적인 담론이 아닌 공세적 담론으로 전환되었으며,<sup>11)</sup> 미국중심의 세계질서에 대한 중국적 대안을 제시하고, 중국의 시각에서 국제질서의 새로운 ‘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공영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국제관계의 구축”(构建以合作共赢为核心的新型国际关系)이라는 시진핑의 요구는 미국중심의 국제질서가 이미 “구시대적”이라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제관계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바를 주장하고 있는데, 갈등과 대결의 국제관계를 넘어서 인류가 공동운명이라는 인식 하의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국제관계로 전환해야 함으로 국제사회에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공동체인가? 중국외교부장 왕이(王毅)에 따르면, ‘인류운명공동체’는 “이익공동체” → “책임공동체” → “운명공동체”의 3단계를 거쳐 발전하게 될 것이며, 국제관계의 발전과정은 “정의성, 평등성, 포용성, 종합성, 과학성” 5가지의 요소를 확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

용하고 있다.

7) Renan, Ernest. “What is a nation?” Geoff Eley and Ronald Grigor Suny, ed. *Becoming National: A Reader*.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p.41-55.

8) 「命运」, 百度百科(<https://baike.baidu.com/item/%E5%91%BD%E8%BF%90/32763>)

9) 「中共首提“人类命运共同体” 倡导和平发展共同发展」  
<http://cpc.people.com.cn/18/n/2012/1111/c350825-19539441.html>

10) 이 회의에서 시진핑은 “强调要切实抓好周边外交工作, 打造周边命运共同体”이라고 한 바 있다.

관련하여 「习近平出席中央外事工作会议并发表重要讲话」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4-11/29/c\\_1113457723.htm](http://www.xinhuanet.com/politics/2014-11/29/c_1113457723.htm) 를 참조.

11) Xiaochun Zhao, “In Pursuit of a Community of Shared Future: China’s Global Activism in Perspective,” 4:1,(2018), pp.23-37.

한다.<sup>12)</sup> 즉 공동의 이익 단계를 거쳐 책임을 나누는 단계 그리고 운명을 같이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면서, 과거 부정의하고 불평등하며 폐쇄적이고 편파적이며 이념지향적이었던 국제관계가 부정되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된 ‘인류운명공동체론’은 국제관계의 새로운 모델로서 미국과 서양 세력의 “제로섬적 사고”와 “냉전적 사고”에 기초한 “구식 모델”에 대항하는 것으로 국제관계의 ‘윈-윈’(win-win)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sup>13)</sup>

## 2. 중국학계의 “인류운명공동체론”의 연구동향

최근 중국의 정치학계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와 함께 ‘인류운명공동체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진핑이 제시한 이 담론의 출현배경, 의미, 내용, 전략 등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내부에서 ‘인류공동운명체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인류공동운명체’라는 주제로 발표한 논문관련 CNKI의 통계에 따르면 ‘인류운명공동체’를 주제로 하여 학술저널에 발표된 연구는 2011~2018까지 총 2595편이었다. 논문발표 수 추이를 보면, 2015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16년 이후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1,591 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동 주제에 대한 키워드 분포를 통해 연구주제의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인류운명공동체’ 키워드가 40.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시진핑’이라는 키워드가 8.45%, ‘일대일로’가 8.06% 순이었다. 그런데 동시출현 키워드들 간 관계를 표시한 키워드 네트워크 연구결과에 대한 다른 시각을 전해주는데, 키워드 간 네트워크에서 중심성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키워드는 ‘시진핑’ 키워드였다. ‘시진핑’이라는 키워드는 ‘치국리정’(治国理政), ‘신시대’,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등의 키워드와 강하게 묶여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인류운명공동체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구키워드는 3개의 주요 그룹으로 분산되어 연구되고 있는데, 첫째 그룹은 ‘시진핑’과 ‘全球治理’(global governance) 등이 묶여 있는 그룹으로 ‘인류운명공동체론’이 시진핑에 의한 새로운 시기의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를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다. 두 번째, 그룹은 ‘일대일로’ 키워드 그룹인데 현재 중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대일로 연구가 ‘인류운명공동체론’과 연관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세 번째 그룹은 ‘맑스주의’와 ‘공동체’가 동시에 출현하고 있는데 ‘인류운명공동체론’이 이념적으로 맑스주의 사상에 기반한 공동체주의 연구경향이 한 편이 존재하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과 분류는 좀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인류운명공동체’ 연구는 주로 중국공산당중앙당교와 중국인민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당교 소속 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은 총 139편, 중국인민대학 소속 학자가 발표한 116편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청화대학(58편), 무한대학(56편), 남개대학(52), 복단대학(43편, 북경대학(39)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학자 중 가장 많은 논문과 관련 글을 발표한 사람은 현재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교수인 왕이웨이(王义桅)인데 총 27편을 글을 발표하였고 그 중 학술논문은 13편이었다. 1971년생인 왕이웨이는 상하이 복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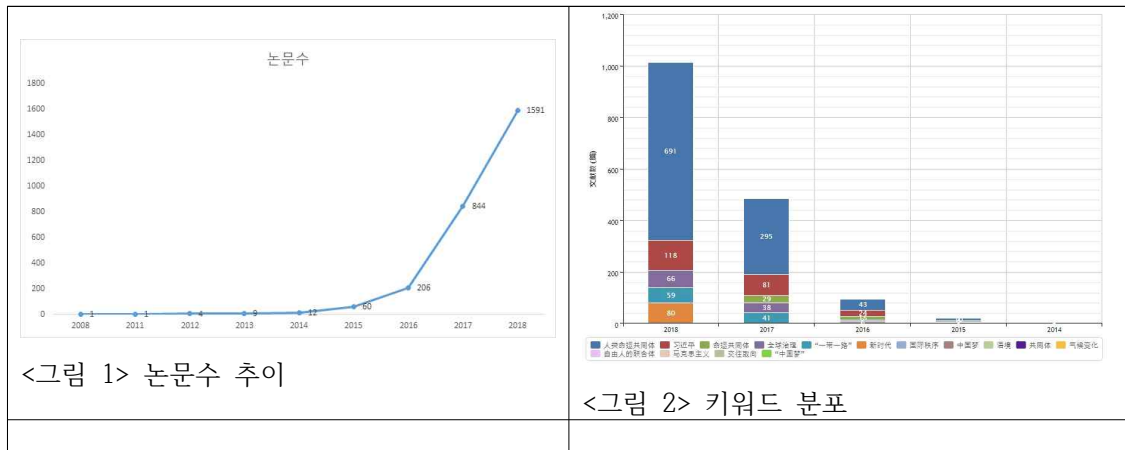
12) 「外交部部长王毅：携手打造人类命运共同体」

<http://theory.people.com.cn/n1/2016/0531/c40531-28394378.html>

13) Mardell, Jacob. “The Community of Common Destiny in Xi Jinping's New Era.”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7/10/the-community-of-common-destiny-in-xi-jinpin-gs-new-era/>, 2017.10.25.)

학에서 국제관계학 학위를 받았고 중국에 공공외교를 처음으로 소개하여 공공외교 연구를 본격화시킨 인물이기도 하다. 2016년 5월 17일에는 시진핑 주석이 주최하고 류원산도 참석한 ‘哲学社会科学工作座谈会’에 참석하여 시진핑의 외교정책을 자문한 바 있다.<sup>14)</sup> 다음으로 관련 논문을 많이 발표한 학자는 예사오원(叶小文)으로 총 13편의 ‘인류운명공동체’를 주제로 한 논문과 문장을 발표했고 그 중 6편이 학술논문이었다. 1950년생인 예사오원은 현재 정치협상회의 위원이며 문사와 학습위원회 부주임이며, 제17기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지냈다. 중앙사회주의학원 당조서기를 역임한 바 있는 사회주의 이론가인 “학술권위”라 할 수 있다. 짜오커진(赵可金) 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12편의 논문과 문장(논문 9편), 중앙당교의 류젠페이(刘建飞), 인민해방군국방대학의 천신(陈鑫), 중공중앙대외연락부의 지쓰(季思) 등이 9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학자들이다.

중국내 연구동향을 종합해 볼 때, 특정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특정 학자를 중심으로 하여 최근 1~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왕이웨이(王毅)의 논문 13편은 모두 2017~2018년에 생산된 것인데, 이 중 ‘일대일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문은 6편이었고, 나머지 논문 역시 인류운명공동체론 구체적인 실현방안보다는 등장배경과 주요 논리 그리고 시진핑 사상과의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인류운명공동체론’이 실질적인 국제질서 변환구상이기 보다는 시진핑 정권의 국정방향에 맞춰 국제질서의 현실을 재구성하는 ‘구성된 공동체론’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러한 논리를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이를 다시 말하면 담론의 형성이 현실을 중심으로 한 현실의 반영이기 보다는 권력을 중심으로 의도적으로 권력관계 하에서 형성되고 확산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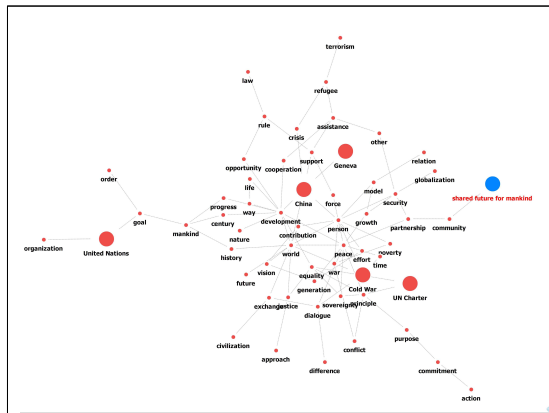


14) 「习近平主持召开哲学社会科学工作座谈会强调：结合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实践 加快构建中国特色哲学社会科学」 <http://cpc.people.com.cn/n1/2016/0518/c64094-28358457.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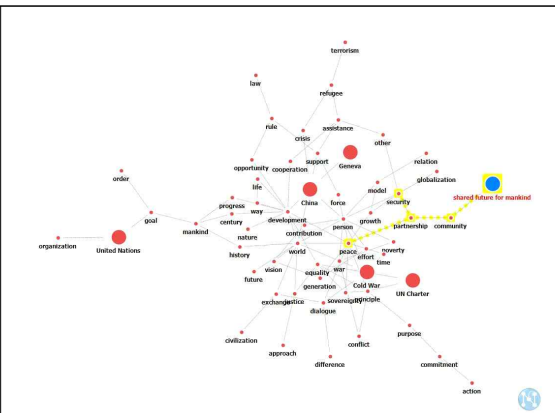








<그림 7> text 전체 네트워크



<그림 8> 인류운명공동체 관련 네트워크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결론으로, 첫째, 시진핑 주석이 분석 대상이 된 연설문을 통해 국제사회에 전달하고자 한 담론은 세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제1주제는 “갈등과 전쟁의 국제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공동운명체 인식 필요”와 관련된 주제로 냉전체제와 테러리즘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하자는 것, 제2주제는 “세계화과정에서의 인류가 당면한 제반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인류공동운명체 실현의 첫 번째 방법이며, 제3주제는 “정의, 평화, 성장이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한 화합의 미래 문명창출”을 담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을 놓고 봤을 때, 중국의 ‘인류운명공동체’ 담론은 미중간의 권력관계 하에서 중국이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를 위한 미래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상호협력과 호혜적 관계 유지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류운명공동체론”은 과거 냉전시대와 탈냉전기 테러리즘으로 인한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새로운 질서는 인류공동의 목표인 평화와 정의 그리고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문명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 알 수 있다.

둘째, 연설문에서 제기한 “인류공동운명”(Shared future for mankind)라는 개념이 갖는 담론상의 구조를 살펴보면, 지구차원에서의 ‘공동체’(community) 실현이 인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으로 인한 인류공동운명과 공동체간의 직접적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라는 단어는 ‘동반자’(partnership), 안보(security)-평화(peace)로 연결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인류공동운명체’는 안보나 평화와 관련된 상호협력을 위한 개념이라는 점이다. 경제적 측면보다는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안보의 측면을 강조한 시각에서 출현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 IV. 결론에 대신하여

이상에서와 같이 중국 시진핑 정권 하에서 제시된 국제질서와 관련된 주요 담론인 “인류운명공동체론”은 강대국화 과정의 중국이 향후 국제질서의 청사진을 잘 보여주고 있고,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시진핑 시기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론”,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인

류공동운명체” 등 담론의 직접적인 소비자인 중국인들이 이러한 슬로건 또는 거대담론들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중국 외부자가 각각의 개별 담론들을 창출해내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맥락적’ 재구성은 이러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시진핑 정권이 제시하고 있는 많은 거대담론 중 ‘인류운명공동체론’은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일종의 인류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인류의 공동운명이라는 화두 속에는 중국적 사회주의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주의 전통적 대외전략 중 하나인 국제적 ‘連帶’를 강화하고자 하는 언술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자유주의 국가인 수퍼 강대국 미국의 대안세력으로써 중국 자신만의 향후 국제질서의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론 속에는 현존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역학관계 그리고 중국이 지향하는 향후 국제사회의 모형들이 잘 드러나 있다. 즉 현존 국제질서에 대한 비판, 권력관계, 중국의 의도와 목표 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담론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특별히 중국 시진핑 정권 하에서 제시된 국제질서와 관련된 주요 담론인 “인류운명공동체론”이 중국의 강대국화 과정의 중국이 향후 국제질서의 청사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시진핑 시기 외교담론의 분석을 통해 중국이 강대국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시하는 행위는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시진핑 연설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지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담론만을 반영한 분석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데이터를 종합한 “인류운명공동체” 담론 등을 비롯한 외교담론들을 시계열적 분석과 함께 특정 시점에서 이 담론의 강조점의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하는 연구로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서덕희, 「담론분석방법과 연구사례」 『대한질적연구학회 학술발표논문집』10(2011)
- 조종혁, 「비판적 담론분석(CDA) 방법의 탐구: 기딘스, 부르드외, 하버마스의 분석모형」,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9:1(2011)
- 김도희, 2014,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에 대한 고찰”, 『韩中社会科学研究』, 제12권 제3호
- 김소중, 2009,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서석사회과학논총』, 제2집 2호
- 「习近平主持召开哲学社会科学工作座谈会强调：结合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实践 加快构建中国特色哲学社会科学」 <http://cpc.people.com.cn/n1/2016/0518/c64094-28358457.html>
- 「外交部部长王毅：携手打造人类命运共同体」 <http://theory.people.com.cn/n1/2016/0531/c40531-28394378.html>
- 「中共首提“人类命运共同体” 倡导和平发展共同发展」 <http://cpc.people.com.cn/18/n/2012/1111/c350825-19539441.html>
- 伟男, 「试论中国国际气候话语权的建构」,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学报』, 1期, (北京: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 2011).
- 刘建涛, 闫博荣, 2018, “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的人民性特质”, 『苏州科技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35卷第1期.
- 王逸舟, 2009, “中国外交影响因子探析”, 『世界经济与政治』, 第9期.

杨洁勉, 2017, “新时期中国外交和安全理论的互动与创新,” 『国际展望』, 第3期.

张端, 2017, “中国共产党人对马克思主义人民主体思想的丰富与发展”, 『郑州轻工业学院学报』(社会科学版), 18(6)

Callahan, William A. “China’s ‘Asia Dream’ The Belt Road Initiative and the new regional order.”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Politics* 1.3 (2016)

Chang-Liao, Nien-chung. “China’s new foreign policy under Xi Jinping.” *Asian Security* 12.2 (2016)

Fairclough, Norman.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Sage, 2013.

Fairclough, Norman. *Language and Power*. (Pearson Education, 2001)

Godbole, Avinash. “China’s Asia strategy under president Xi Jinping.” *Strategic Analysis* 39.3 (2015)

Haas, Peter M.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1 (1992),

Lingliang, Zeng. “Conceptual analysis of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A road towards a regional community of common destiny.”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5.3 (2016)

Mardell, Jacob. “The Community of Common Destiny in Xi Jinping’s New Era.” *The Diplomat*, (<https://thediplomat.com/2017/10/the-community-of-common-destiny-in-xi-jinpings-new-era/>, 2017.10.25.)

Renan, Ernest. “What is a nation?” Geoff Eley and Ronald Grigor Suny, ed. *Becoming National: A Reader*.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Swaine, Michael D. “Chinese views and commentary on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hina Leadership Monitor* 47.2 (2015)

Weiss, Gilbert, and Ruth Wodak. “Introduction: Theory, Interdisciplinarity and Critical Discourse Analysi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London: Palgrave Macmillan, 2003

Xiaochun Zhao, “In Pursuit of a Community of Shared Future: China’s Global Activism in Perspective,” 4:1,(2018)

Cook, Linda J. 2007, *Postcommunist Welfare States: Reform Politics in Russia and Eastern Europe*, Cornell University Press.

Erwin Marquit, 2005,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and Vanguard Party in Historical Context,” *Nature, Society, and Thought*, 18. 4, 549-584.

Gunter Schubert, 2008, “One-Party Rule and the Question of Legitimacy in Contemporary China: preliminary thoughts on setting up a new research agend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7:54, 191-204.

Huang, Xian. 2014, “Expansion of Chinese Social Health Insurance: who gets what, when and how?”,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John Baylis, Steve Smith, Patricia Owens, 2014,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Josef Gregory Mahoney, 2009, “Ideology, Telos, and the “Communist Vanguard”

from Mao Zedong to Hu Jintao,” *Journal of Chinese Political Science*, 14, 135-166.

Kornai, Janos. 2006,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Michael D. Swaine, 2017, “Chinese Views of Foreign Policy in the 19<sup>th</sup> Party Congress,” *China Leadership Monitor*, No.55.

Steve Tsang, 2009, “Consultative Leninism: China’s new political framework”,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8(62), November, 865-880.

Stuart Schram, 1989, *The thought of Mao Tse-Tu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V. I. Lenin, 1969, *What is to Be Done? Burning Question of Our Movement*,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

Wang, Hui, 2014, “The Crisis of Representativeness and Post-Party Politics”, *Modern China*, Vol. 40(2) 214-239.